

2025 년 8 월 오이코스 나눔지 Oikos Sharing for August 2025

오이코스에서 찬송가 한 곡을 정하여 부른 후, 대표로 한 사람이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At Oikos, after selecting and singing a hymn, one person prays for the meeting.

말씀 읽기: 마태복음 4 장 1-11 절

시험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Scripture Reading: Matthew 4:1-11

The Son of God who triumphed over temptation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는 복음서

Reading the Gospels through a Christ-centered lens: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미'와 '아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 '이미' 임했습니다. 마지막 때의 복이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죄가 없는 완전한 삶으로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굳건히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책무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분을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그 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There are two key words that are essential to understanding the Kingdom of God: "already" and "not yet." The Kingdom of God has already come to this world. The blessings of the end times have already been given to us—because Jesus has already fulfilled His mission on earth by living a sinless and perfect life, and by overcoming Satan. By conquering death and rising again, He firmly established the Kingdom of God in our midst. Our only task is to bow before Him, to believe in Him, and to return to Him by repenting of our sins.

또한 우리는 '아직'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해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분명히 깨어 매일같이 죄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좌절을 경험할 것이고, 기쁨을 앗아가는 일들도 겪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At the same time, we are living in the "not yet." Although we are saved by grace, we have not yet reached perfection. Until Christ returns, we must remain vigilant and continue to fight against sin every day. In this life, we will experience many disappointments and face moments that steal our joy. Yet even in such moments, we must hold fast to the truth that Jesus Christ—who rules over all creation—will come again in the end. He is the victorious Lord. Jesus will surely return and bring the Kingdom of God to its full completion. We live each day in faith, looking forward to that glorious day.

복음서 한눈에 보기 **An Overview of Gospels**

예수님의 광야 시험 사건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광야 시험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받았던 사명(출애굽기 4:22-23)에 대한 반복적인 실패를 극복하셨습니다. 출애굽 이후 온갖 불평으로 실패한 이스라엘과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신명기 6, 8 장)을 가지고 광야 시험을 이기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자기 이익을 위해 그의 아들됨의 특권을 남용하지 않으십니다.

The wilderness temptation of Jesus carries three significant meanings. First, through His victory in the wilderness, Jesus overcame Israel's repeated failures in fulfilling their calling as God's "firstborn son" (Exodus 4:22–23). Where Israel had grumbled and failed

repeatedly after the exodus, Jesus triumphed by relying on the very words God had given to Israel in the wilderness (Deuteronomy 6 and 8). In doing so, He trusted the Father completely and refused to misuse His identity and privileges as the Son of God for personal gain.

둘째, 예수님은 죄의 결과가 참혹히 드러나는 장소, 곧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겨난 황폐한 광야에서 사탄에 맞서십니다. 실패한 아담과 달리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아담의 죄로 인해 생겨난 혼돈과 부조화를 완전히 극복하십니다.

Second, Jesus confronted Satan in the barren wilderness—a place that vividly revealed the consequences of sin, brought about by Adam's disobedience. Unlike Adam, who failed in paradise, Jesus prevailed in the wilderness. His victory overcame the chaos and disorder introduced by Adam's sin.

셋째, 기름 부음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대표가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만물이 회복되고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게 될 것을 보여 줍니다.

Third, the temptation account reveals the victory of the Anointed Son of God. This triumph points forward to the restoration of all things through the ministry of Jesus, the Son of God and representative of humanity. It also proclaims the ultimate downfall of Satan's kingdom.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은 순종하는 아들이자 사람과의 대결에서 이미 승리하신 분으로서 강한 자를 결박하는 능력과 권위가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그 나라는 능력으로 임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곧 이방 지역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구원의 빛으로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나라, 곧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Jesus, who proclaimed the Kingdom of God, is the obedient Son and the one who had already triumphed over human opposition. He possesses the power and authority to bind the strong man. When Jesus declares the Kingdom of God, that Kingdom comes with power. He begins His ministry in Galilee, the region closest to the Gentile territories. To the people walking in darkness, He comes as the light of salvation and proclaims the Gospel—the good news of the Kingdom of God.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죄를 용서해 주시는 여러 기적을 행하십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기름 부음받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여러 기적과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신분과 하나님 나라를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이러한 기적을 직접 목격하거나 전해 들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도 대체 누구인가?"

Jesus heals the sick, casts out demons, and forgives sins through miraculous signs. As the obedient Son of God and the Anointed Messiah, Jesus increasingly reveals His identity and the nature of God's Kingdom through both His miracles and His teaching. Those who witness or hear about these signs naturally begin to ask, "Who is this man?"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스도가 어떻게 영원한 나라를 가져올 것인지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어째서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Jesus turns to His disciples and asks, "Who do you say I am?" Peter answers, "You are the Christ." Jesus then begins to explain what it truly means for Him to be the Christ—how the Messiah will bring about the eternal Kingdom. But the disciples cannot yet grasp why the Anointed King must suffer and die in Jerusalem.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신 '변화산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방식을 보여 줍니다. 영광의 광채로 빛나며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장차 다가올 고통 앞에서도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참된 영광을 보게 됩니다. 구름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알게 됩니다.

The event of the Transfiguration shows how the Kingdom of God comes in power. In the radiant transformation of Jesus' appearance, we behold the true glory of the Son of God—a glory that shines even in the face of coming suffering. The voice of God the Father from the cloud confirms that Jesus is indeed His beloved Son. Through the resurrected Christ, we come to understand that the Kingdom of God will surely come.

나눔 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신자를 실패하고 넘어지게 하는 가장 큰 적은 죄입니다. 나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나요?

The greatest enemy that causes believers to stumble and fall is sin. How often do I take time to confess and repent of my sins before God?

2. 이스라엘이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졌던 광야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십니다. 내 삶의 광야에서도 예수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나요? 이 믿음이 나의 삶에 가져온 변화는 무엇인가요?

In the wilderness—where Israel repeatedly failed—Jesus was victorious. Can I trust that Jesus will also be victorious in the wilderness seasons of my life?

3. 우리의 실패를 승리로 바꾸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나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의지하는 한 주간이 되기 위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누어 봅시다.

Let's share practical ways we can wholly rely on Christ, who turns our failures into victory and gives us eternal hope, so that this week may be one of deeper faith and trust in Him.

기도로 함께 소망하며 **Praying Together in Hope**

1. 성경 말씀에 기초해,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1. Based on the Scripture, offer a prayer of praise and thanksgiving.

Jesus said 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he dies; and whoever lives and believes in me wi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John 11:25-26)

2. 일상의 변화를 소망하며,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2. Hoping for change in our daily lives, offer prayers of repentance and resolution.

3. 서로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3. Pray for one another and for the church.

4. 주기도문으로 오이코스 모임을 마칩니다.

4. Conclude the Oikos meeting with the Lord's Prayer.